

합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운영

27개소 대상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 운영



합천군보건소는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한다. / 합천군보건소

합천군보건소(소장 이미경)는 의료취약지역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주요 건강관련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친숙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건강 격차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이 9월 15일 아로면 창계1구마을/하림1구마을, 삼가면 어은마을 경로당을 시작으로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27개 마을을 선정해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6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한방장수교실은 공중보건한의사가 뇌졸중, 근골격계 질환예방 관리 및 식습관 관리 교육을 실시하며 체질에 따른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준다. 또한 건강상담 및 이침 등 예방 목적의 한의약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질병 조기검진 및 신체기능 강화에도 기여한다.

한편 이미경 합천군보건소장은 “개인별 체질에 맞는 한의약 관리법과 관절, 근력 강화운동 등 한의약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지역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상준기자

158 X 134 mm

경남매일

2022년 09월 20일 (화)

인물 15면

경남신문

2022년 09월 20일 (화)

인물 12면



합천 꿈드림 자치모임 '청·바·지', 줍깅 활동 펼쳐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치모임 '청·바·지(청소년이 바꾸는 지역사회 줄임말)'는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함께하는 '줍깅' 활동을 대야주희망정원, 일해공원 등 합천읍 일대에서 실시했다. '청·바·지' 활동 청소년은 “그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줍깅 활동을 통해 운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선욱 기자

80 X 90 mm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청·바·지' 읍 일대서 '줍깅'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치모임 '청·바·지'는 대야주희망정원, 일해공원 등 합천읍 일대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을 함께하는 '줍깅' 활동을 실시했다.

줍깅은 한국어 '줍(다)'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등의 환경정화 활동이다.

서희원 기자

115 X 86 mm